



6년여의 복원봉사를 통해 옛 모습을 되찾은 금강산 신계사 전경.

통일불국토, 금강산에 열렸네

금강산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 현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오른쪽)과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유영선 위원장이 현상하고 있다.

#극락전·나한전 등 전각 11동 낙성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금강산 신계사에 나무신 통일부처님, 한민족, 한핏줄이지만 떨어져 살아온 지 60여 년, 분열과 갈등의 화에 의해 소실되었던 신계사를 복원하면서 남과 북 2천만 불자들의 불심 모아 화합과 조국의 평화 통일의 등을 밝히게 하소서.”
2006년 11월 19일, 불교의 성지이자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에서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이 열렸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린 이번 낙성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유영선 위원장, 현대아산 회장은 회장을 비롯 남북한 불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만히 회향했다.

이번 행사는 극락전, 나한전, 종각 등 11동의 전각을 무사히 낙성한 것을 기념하고 신계사 복원 원력을 통해 남북한 화합과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혜와 자비를 구

족하신 부처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정토가 하루 속히 오기를 일심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분사 아미타불.”
경과보고, 나한전 편액 제막 등 본 행사에 앞서 봉행된 ‘극락전 부처님 이운 봉안식’에서 남북한 불자 500여명은 신계사 극락전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봉안식에 참가했다. 이날 모인 남북한 불자들의 ‘불심(佛心)’과 ‘통일염원’ 기도 앞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사상과 체제는 다만 ‘색(色)’만 다른 옷을 입은 하나 된 민족임을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다.

고사리 손을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소리내어 외우고 있는 북한 어린이 손민영(9)군. 염주를 목에 걸고 사뭇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김가영(중모)가 화풍·8양양의 모습. 백발이 성성한 김외분 할머니가 극락전 법당에서 설 새 없이 절을 하는 모습. 김일성의 초상과 인민기가 새겨진 배지들 단 복장을 한 조별관 관계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는 모습은 불심으로 하나 된 ‘통일불국토’ 그 자체였다.

지관 스님과 유영선 위원장의 공동 현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낙성행사가 진행됐다. 지관 스님과 유영선 위원장의 뒤를 이어 월탄, 정무 스님, 현대아산 회장은 회장, 북한 문화보존지도국 리의하 부국장 등 남북한 관계자 20여명이 현상·현향 의식에 참가했다.

#2007년 완전 복원 기원하며 회향

봉행사를 통해 지관 스님은 “2004년 대웅보전 낙성에 이어 오늘 이렇게 극락전과 나한전 등을 비롯해 11동의 전각을 복원하고 낙성식을 가질 수 있었



‘금강산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11월 19일 남북한 불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극락전, 나한전 등 총 11동의 전각이 복원된 신계사는 남북화합과 평화통일의 초석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금강산의 일부가 됐다.

던 것은 남북한 2천만 불자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신계사 복원 불사를 통해 남북화합과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선 위원장도 축사에서 “신계사 복원불사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적 동질성을 여실히 보여 준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날 신계사 복원 남북 공동 낙성식은 나한전 편액 제막 행사를 끝으로 ‘2007 신계사 완전 복원 남북 공동 낙성식’을 기원하며 회향했다.

글·사진/금강산 신계사·노병철 기자

▶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일지

▲2000년 금강산 신계사에서 복원 기원 법회 개최 ▲2002년 4월 신계사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 ▲2003년 7월 조계종과 현대아산(주) 간 신계사 복원불사 합역서 체결 ▲2003년 11월 남북 공동 신계사 시·발굴 조사 실시 및 대웅전 및 삼층석탑 설계 작업 ▲2004년 4월 신계사 복원 착공식 ▲2004년 8월 삼층석탑 및 만세루 발굴조사 및 대웅전 기초공사 실시 ▲2004년 11월 대웅전 낙성식 개최 ▲2005년 7월 만세루, 산신각, 삼층석탑 복원 ▲2006년 4월 대웅전, 산신각, 만세루 등 단청불사 실시 ▲2006년 11월 극락전, 나한전, 종각, 어실각 등 낙성행회 개최 ▲2007년 삼존불 봉안, 요사채, 일주문 등 복원불사 완료 예정

interview

신계사 지킴이 제정 스님

“2007년 신계사 복원불사가 완료되면 북측과 협의 후 신계사를 ‘남북 공동 기도·수행도량’으로 만들겠습니다.”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사진은 신계사 복원불사는 물론 금강산의 명찰이었던 장안사, 법기암 등을 포함해 개성에 있는 사찰들까지도 순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내비쳤다.

제정 스님은 200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신계사 도감 소임을 맡으며 목수들과 단청장, 와공들과 함께 하루 10시간씩 불사를 하면서 복원 공정 앞당기기에 매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단청 색감·건축양식 등 남북 공통 매뉴얼 만들어”

신계사 복원불사는 대웅전과 극락전, 만세루 등 총 12개동 전각 중 11동을 복원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85%의 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 중순 마무리될 삼존불 봉안, 요사채 수리, 일주문 건립을 끝으로 신계사 복원불사는 원만히 회향될 것으로 보인다.

“단청의 색감과 사찰 양식에 대한 남북한의 해

석 차이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이 같은 토론과 논쟁은 종교 이전에 남북한의 문화·학술적 교류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단면일 것입니다.”

사찰의 건축 양식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특색이 다양한 것을 감안할 때 남북한 공통의 단청 색감과 건축양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내년 말 ‘신계사 남북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학계에 소개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나한전



축성전



산신각



종각



철성각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우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식물성양초**, **약쑥양초**,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밀납양초(蜜蠟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입 받침대 2개입)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입)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5 밀납초돈타레 4.2φ × 28Cm
- 6 밀납초 1호 반아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8 밀납초 3호 반아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9 밀납초 4호 반아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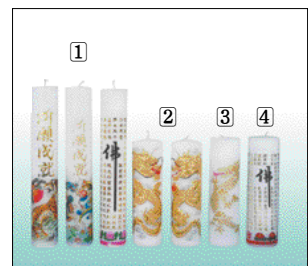
▶ 약쑥양초

- 1 원기둥 7.4φ × 30Cm
- 2 돈타레 5.6φ × 27Cm
- 3 돈타레 4.2φ × 28Cm
- 4 약쑥향 1호 5.9φ × 20Cm
- 5 약쑥향 3호 4.7φ × 13Cm
- 6 약쑥향 4호 4.7φ × 10Cm
- 8 약쑥향 등초 3.1φ × 12.5Cm



▶ 식물성양초

-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φ × 29Cm
-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φ × 27Cm
- 3 식물성양초 밀대 4.6φ × 26Cm



- 1 7.5φ × 45Cm 전사지 (호랑이, 용, 반아심경)
- 2 8.3φ × 30Cm 쌍용(용이 마주 보고 있음)
- 3 9.2φ × 31Cm (전사지용)
- 4 9.2φ × 31Cm (전사지)반아심경



- 1 밀대 4.6φ × 25Cm 백색, 핑크, 청색, 살색, 적색, 연두, 전사지, 연화, 반아심경, 무지개
- 2 글대 3.4φ × 22.5Cm 백색, 전사지, 반아심경, 연화



- 1 7.4φ × 14.5Cm 백색, 적색, 청색, 노랑, 핑크, 연두
- 2 4.6φ × 15Cm 백색, 무지개, 반아심경
- 3 7.4φ × 10Cm 반아심경
- 4 등초 3.1φ × 12.5Cm
- 5 등초 1.8φ × 12.5Cm (봉지20개입)



- 1 삼지개 반아심경, 연화, 호랑이, 용
- 2 종이컵초 2개입
- 3 연화(대) 적노, 핑, 주황
- 4 연화(중) 적노, 핑, 주황
- 5 연화(소) 적노, 핑, 주황
- 6 바람막이(중)
- 7 바람막이(소)